월요광장

'퍼스트 펭귄'과 '자동차 100만대'

최 지 호
전남대 경영학부 교수

최근 유럽 최대 산유국인 노르웨이의 여·야당이 2025년부터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를 전면 금지하는 방안에 사실상 합의했다.

네덜란드에서도 2025년부터 내연기관차의 판매를 금지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전기차(EV)와 수소전기차(FCEV)의 신규 판매만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기후변화로 빙하가 녹으면 국토가 물에 잠길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이며, 근시안적 사고를 깨는 미래지향적인 냉철한 의사결정이라 생각된다.

최근 5년간 적자에 허덕이고 있고, 주주들에게 배당 한번 제대로 한 적이 없지만 시가총액은 우리 돈으로 38조 원(미국의 글로벌 자동차기업인 GM의 8배 수준)에 이르는 테슬라 모터스의 테슬라 '모델3'이 1개월 만에 40만 대(지난해 전 세계 전기차 판매량은 32만대 수준)가 사전 예약되었다. 한번 충전으로 346㎞를 주행할 수 있고, 3만5000달러라는 현실적인 가격이 그 이유라 할 수 있다. 테슬라의 시가총액이 높게 평가되고 있는 이유 중 하나는 이처럼 전기차의 고질적인 문제점을 꾸준히 개선해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테슬라는 이상한 기업이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동시에 스티브잡스 시절의 애플과 비교될 만큼 독보적인 경쟁력을 만들어가고 있다.

정부는 최근 신속한 구조조정과 산업구조 재편에 매진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조선업을 기반으로 하는 지역의 침체와 갈등 사례를 철강, 유화, 자동차 제조업 비중이 큰 지역에서도 반면교사 삼아야 할 것이다.

정부는 친환경에 대한 강한 규제 정책과 친환경차량 구입 유도 정책으로 2020년까지 글로벌 전기차 4대 강국 진입을 천명했다. 기술개발의 속도도 결국 전기차가 내연기관 차량을 대체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주고 있다. 전 세계적인 친환경 흐름 속에서 전기차나 수소전지가 차후 내연기관을 대체하는 것은 속도의 문제이지 대세이다.

특히 자동차 제조업은 대규모 일자리 창출의 원동력이기 때문에 지역 경제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서비스업과 비교하여 제조업은 성장할수록 근거지에서 일자리가 더 많이 창출된다.

강한 잠재력을 가진 지역 제조업의 육성과 성장 방안을 고민해야 하는 시점에서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조성 사업'의 정부 예비타당성 통과는 많은 의미를 지니고 있다. 저임금 국가로 나갔던 선진국의 제조 공장(오프쇼어링·offshoring)이 다시 선진국으로 되돌아오고 있는 리쇼어링(reshoring)과 같은 과정 없이 처음부터 지역에 유치하는 것은 기업, 국가, 지자체 모두에게 이익이다.

경기는 갈수록 둔화되고, 제조 기반은 해외로 이전되고, 점차 일자리는 줄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의 미래경쟁력 강화를 위해 100만대 생산기지에 대한 장기적인 비전을 토대로 난관들을 극복해나가야 한다.

해외 이전의 핵심 원인 중의 하나였던 저임금 요소를 극복할 수 있는 노동생산성과 노동유연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친환경 자동차의 가치 사슬을 구성하고 있는 배터리, 모터, 전력관리 및 제어 시스템, 전기차 생산, 충전 인프라를 대상으로 단계별 부가가치와 지역 적합성 등을 고려하여 추진되어야 한다. 근시안적인 자세가 아닌 장기적인 안목에서 지역 제조업의 혁신을 만들어가기 위해 지역의 구성원들이 지혜를 모으는 것도 중요하다.

'퍼스트 펭귄'이란 천적 때문에 바다에 들어가기를 주저하는 무리 중 가장 먼저 바다에 뛰어들어 무리를 이끄는 펭귄을 말한다. 불확실성을 감수하고 용감하게 도전하는 선구자를 의미한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퍼스트 펭귄'이 우리 지역의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첫 단추이다. 첫 단추는 잘 끼워진 것 같으니 이제는 냉철한 판단 속에 집중도와 추진력을 고도화해 미래 자동차 시장에 대응해야 한다.

그 결과로 지역에 많은 일자리가 생기고 지역민의 삶의 질이 높아지는 것을 보고 싶다.

※이 칼럼은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을 받았습니다.

기 고

강진청자축제에서 시원한 여름 즐기세요

강 진 원
강진군수

어린이가 흥겹게 놀 수 있는 마당이 '남도답사 1번지' 강진에 있다. 더위를 가시게 하는 멋진 어린이 참여 프로그램과 물놀이장, 부모들을 배려한 편의시설까지 완벽하게 갖췄다. 올해로 마흔네 번째 맞는 강진청자축제가 오는 30일부터 9일간 강진군 대구면 청자촌에서 열린다.

'어린이와 함께하는 강진청자축제'가 올해 슬로건인 만큼 정성을 쏟아 준비했다. 어린이 호기심에 불을 지피고 어른도 짬짬이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 풍성하다. 자연과 역사, 문화, 여기에 여름 한낮 더위를 잊게 하는 레저까지….

어린이들이 제일 먼저 찾는 곳은 역시 놀이공간일 터, 그래서 마련했다. 일명 '시원한 체험', 넉넉하고 다양한 물놀이 시설에서 '행운을 찾아라!'에 몸을 담근 뒤 여름음료를 직접 만들다 보면 스스로 만든 음료에 대한 기대가 커지며 더위는 온 데 간데 없이 사라진다.

이어 '청자 체험'을 통해 고려청자 접시 깨기, 고려청자 사적지 유물 발굴, 유아 놀이공간인 고령토 밟기, 고려청자 머그컵 낚시를 즐길 수 있다. 어린이 동물농장 가족과 물고기들에게 먹이를 주는 체험을 통해 생명의 소중함까지 경험해 볼 수 있다.

여기에 초등학생 저학년 어린이들로부터 꾸준한 인기를 얻고 있는 뽀로로, 어벤져스, 디즈니 애니메이션 캐릭터를 활용한 포토존에서 인증샷은 필수 코스. 이곳에는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캐릭터 인형을 진행요원으로 배치했다.

강진군은 어린이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흥미를 갖고 마음껏 즐길 수 있도록 어린이 참여 프로그램 행사장을 최우선 배치했다. 경찰과 보건의료, 위생, 자원봉사 등 어린이를 위한 안전망 역시 촘촘히 짰다.

이와 함께 행사장을 어린이·휴식·체험·참여·판매존으로 구분했다. 휴식존에는 어린이와 가족들이 편안히 쉴 수 있도록 고려청자박물관 경내 녹나무 그늘에 평상을 설치했다. 도로변 벚나무 그늘 아래는 부스를 설치하지 않고 휴식공간으로 만들었다. 축제장 동선 곳곳에 그늘막 시설, 인공비 시설, 냉방 휴게시설을 추가로 설치하고 가족단위 관광객들이 쉴 수 있도록 했다.

어린이들을 위한 공간은 행사장 밖에도 무궁무진하다. 강진청자축제장에서 10~20분 안에 깨끗한 청정수 계곡물을 온몸으로 느끼며 물놀이를 즐길 수 있는 강진 3대 물놀이장이 있다.

우선 축제장 인근 초당림 물놀이장. 960ha에 이르는 국내 최대의 인공숲으로 둘러싸여 있다. 물놀이장 3곳, 데크 쉼터를 갖췄다. 울창한 숲을 배경으로 맑고 깨끗한 계곡물이 흘러 산수가 절경을 이룬다.

강진읍내 보은산 V-랜드는 보은산 고성사 바로 아래계곡에 1107㎡ 면적에 4개의 물놀이 시설, 원두막형 파고라와 175m 데크를 갖췄다.

올해 처음 문을 연 도암면 석문공원 물놀이장은 앞선 두 곳에 비해 풍경이 뒤지지 않는다.

기암괴석이 절경을 이루는 '남도의 소금강' 석문공원 계곡에 290㎡ 규모로 조성됐다. 기존 계곡물은 아래로 흘려보내고 암반관정을 새로 뚫어 식수로도 손색없는 깨끗한 물을 공급한다.

피아노와 첼로형상을 한 물놀이장과 유아용 물놀이장을 만들었다. 수심은 아이들이 놀기에 안전한 90~110㎝ 수준이다. 미끄럼틀과 그늘막, 샤워장 등 편의시설이 갖춰져 있다. 강진 3대 물놀이장은 강진청자축제에 앞서 16일 문을 열었다. 입장료는 없다.

울창한 숲과 바람소리마저 시원한 계곡, 여기에 문화유산의 향기와 신나는 축제까지 한 묶음으로 돼 있다.

여기에 가우도 출렁다리와 주말 마량 놀토수산시장, 강진 오감통까지 이어지는 강진여행은 어린이와 부모 모두 황홀한 스토리를 만들 수 있는 더할 나위 없는 기회다. 잊을 수 없는 추억이 될 것이다.

대한민국 대표축제 강진청자축제에 오면 어린이들은 흥미와 즐거움을, 부모는 내 아이의 건강한 모습에 반하게 된다. 더위는 저만치 물러가고 행복이란 이름의 잔잔한 물결이 가슴으로 밀려올 것이다.

법조칼럼

변호사 되길 잘했다고 느낄 때

박 승 일
광주지방변호사회 공보이사

7월 초에 고용노동부 소속 차별시정담당 사무관인 변호사에게 전화가 왔다.

최근 대법원에서 확정된 금호타이어 직원 호봉정정 사건 판결을 알려 줄 수 있느냐는 요청이었다.

오랜 기간 금호타이어에서 일해 온 파견 직원들이 정규직 전환 계약을 체결했는데, 전환 계약일부터 1호봉이었다. 하지만, 정규직원으로 전환 가능했을 때인 2년 경과시부터 1호봉으로 계산되어야 형평에 맞는다며 호봉을 올려달라는 소를 제기했고, 결국 대법원에서 승소했다.

이번 판결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경영자에게 상당한 부담이 되겠지만 전국에서 다양한 형태로 일하는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희망일 터다. 일부 언론에서도 관심을 보였고 정부에서도 적극 검토한다니 즐거운 마음이다. 괜스레 변호사로서 사회에 얼마나 도움이 됐는가를 돌이키는 기회가 됐다.

최근 광주 제2순환도로 문제로 광주시와 민자 사업자가 화해했다는 언론 보도에 광주시청 공무원 재직시절 순환도로 지배구조의 법률적 문제점에 행정처분을 내리도록 뒷받침했던 시절도 떠올랐다.

앞으로는 더 이상 광주시에서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 방향으로 결론났다니 기꺼운 마음이다.

광주U대회 선수촌 아파트 건축 문제로 현대건설 법무팀과 줄다리기 협상을 한 것도 어떤 형태로든 사회에 기여했다고 믿고 싶다.

변호사는 다른 사람을 도우면서 돈을 버는 직업이다. 남의 불행과 억울함이 나의 소득인 묘한 직업이다. 요즘처럼 법조의 신뢰가 땅에 떨어지고 전관예우 문제가 불거질 때는 변호사 배지도 떳떳하게 달고 다니기 어렵다.

정말로 어떤 변호사처럼 '오피스텔을 100채 넘게 가질 수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서 '그럴 수도 있겠지요'라고 답했지만 입맛이 썼다. 비슷하게 물어보는 아내는 더 무섭다.

현직변호사가 광주시청에 9급 공무원으로 지원했다는 뉴스가 오늘의 모습이다. 요즘은 직원 월급날이 두려운 변호사가 많다. 물론 믿지 못하는 시민도 많을 것이고 국민의 눈높이와 다른 세상에 산다며 비난하실 분도 있을 것이다.

로스쿨이 생겨 수많은 변호사가 나오는데도 여전히 변호사 문턱은 높고 아직까지 기대만큼 다양한 법률서비스가 제공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개인적으로는 가족들에게 물질적으로 잘해 준 기억이 없어 미안하다. 그런 민망함을 변호사로서 사회에 얼마나 좋은 영향을 끼쳤나라는 자기 위안으로 감춘다.

배고픈 변호사는 사자보다 무섭다는 서글픈 소리도 있다. 대법원 판례는 변호사가 상인이 아니라고 하지만 이미 변호사는 상인으로 전락한 것이 현실이다. 사회에 좋은 영향을 준 선배 변호사들을 보면 눈앞의 돈벌이를 연연하지 않은 분들이 많고 앞으로도 이런 분들이 많을 것이다.

솔직히 필자는 사회에 좋은 영향보다 돈 벌고 싶은 '속물 변호사'다. 하지만, 남들 인생에 작지만 긍정적 도움을 주고 싶은 오지랖 넓은 사람이기도 하다.

최근 가장 보람된 일은 국선변호사로서 바바리맨(?)이 무죄 받은 일이다. 앞서 말한 비정규직 근로자의 차별시정 문제나 광주시민이 세금부담을 줄어든 것은 그저 돈에 관한 것이지만 이 남자는 명예와 함께 가정을 지켰다. 비슷한 일로 재판도 받기 전에 야구를 그만두게 된 선수도 있잖은가.

처음 변호사가 됐을 때 판사인 친구가 '너는 제발 법정에 들어올 때 오래오래 풋풋함을 유지하면 좋겠다'고 조언했다. 지금은 여고생 딸이 '아빠, 요즘 얼굴에 욕심살이 덕지덕지 붙는 거 같아'라고 말해서 가슴이 뜨끔하다.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십시오.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54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

社 說

호남 대변하겠다던 두 야당 초심 식어가나

여소야대로 정치 지형이 변한 20대 국회가 개원 두 달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4·13총선에서 '호남의 대변자'를 자처하며 지지를 호소했던 더불어민주당(더민주)과 국민의당의 지역 현안 해결 노력에 대한 지역민의 시선은 미덥지 못하다.

먼저 전통적인 텃밭이었던 호남에서 3석에 그쳤지만 수도권·영남권 선전으로 입지가 커진 더민주가 지역 현안 추진에 얼마나 당력을 모으고 있는지 의문이다. 호남 참패 후 기회 있을 때마다 매진하겠다고 다짐했지만 진정성을 찾기는 아직 어렵다. 선거 후 5·18 광주민주화운동 폄훼를 막고 '임을 위한 행진곡' 기념곡 제정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마련해놓고도 미적거리는 게 대표적이다.

여기에 영남 위주의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안'에는 속수무책이었고, 박근혜 대통령까지 나서 대구공항 통합 이전을 밝혔지만 이보다 훨씬 빨리 해결을 건의를 한 광주공항 문제에 대해서도 뾰족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 광주·전남·북 국회의원은 단 3명에 불과하지만 총선 압승으로 대선 정국에서 호남이 결국 지지할 것이라며 벌써 안이해졌다면 등돌린 지역민의 마음을 다시 얻기는 힘든 일이 될 것이다.

호남의 전폭적인 지지를 바탕으로 3당의 입지를 다진 국민의당에 보내는 눈길도 곱지는 않다. 국회 개원부터 캐스팅 보터로 영향력을 발휘하고, 5·18 특별법 개정안 발의 등 좋은 출발을 보였으나 총선 홍보비 파동으로 자체 추동력이 떨어지는 바람에 애초 기대에는 부응하지 못해서다.

더민주와 국민의당은 총선 때 마음으로 돌아가 신발 끈을 졸라매야 할 시점이다. 두 야당은 지역의 당면 과제를 재점검하고 당 차원에서 내년 예산을 반드시 관철할 수 있도록 자세를 가다듬어야 할 것이다. 지역민들은 누가 얼마나 약속을 지키는지 주시하고 있다는 점을 잊지 말기 바란다.

휴가철 무등산 환경 훼손 시민정신 부끄럽다

무등산이 국립공원으로 승격되지 3년이 됐음에도 시민의식은 되레 퇴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말과 휴일 전국에서 5만 여 명의 탐방객이 찾는 광주의 명승이 쓰레기 투기 등 무질서로 몸살을 앓고 있는 것이다.

무등산 국립공원 관리사무소에 따르면 지난 2014년 휴가·피서철(7~8월) 7건이던 무등산 내 무질서 행위가 지난해 40건으로 급증했다. 지난 2년 여름 동안 국립공원 지정 이후 홍보와 계도 중심으로 단속이 이뤄졌던 점을 감안하면 실제 무질서 행위는 이를 훨씬 웃돌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여름 적발된 무질서 및 행위는 취사행위 11건, 어류 채집 4건, 흡연 17건, 출입금지 구역 출입 2건, 애완동물 반입 3건, 쓰레기 투기 2건, 기타 1건 등 40건이다. 적발 장소는 원효계곡 21건, 증심사 계곡 5건, 용추계곡 1건 등 계곡에서만 27건이 집중됐다.

본격 휴가철을 맞아 이런 행태가 반복될 것을 우려한 무등산 국립공원 관리사무소는 지난 9일부터 무질서 행위 집중단속에 나섰다. 하루 평균 100 여 ㎏의 쓰레기가 쌓이는 무등산에서 얌체 투기가 극성을 부릴 우려가 있어서다. 지난 5월에는 쓰레기 4.5t을 헬기로 수거하기도 했다.

무등산은 후손에게 물려줘야 할 소중한 공유자산이다. 광주 시민들이 무등산을 보호하고 아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럼에도 무질서 행위가 줄지않으면서 자연이 훼손되고 쓰레기 처리 예산 등 사회적 비용을 치러야 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산을 내 집처럼 아끼는 시민의식을 갖는 것이다. 쓰레기가 생기는 음식물 휴대를 최대한 자제하고, 쓰레기가 생기면 되가져오면 될 일이다. 광주가 문화수도인 만큼 산에서도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줘야 한다. 단속으로 무질서를 바로잡는 후진적 행태를 반복해서야 되겠는가.

無 等 鼓

한류 작가

한강의 소설 '채식주의자'의 맨부커상 수상을 계기로 문학분야에서 한류 열풍을 기대하는 분위기가 높다. '채식주의자' 덕분에 외국 문학계의 한국 문학에 대한 관심이 한층 커진 탓이다.

한국 문학은 역량에 비해 세계에 덜 알려지고, 저평가된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우리 작가들은 기록으로 보더라도 조선시대에 이미 아시아에서 상당한 지명도를 갖고 있었다.

16세기말에서 17세기초 베트남에서 가장 유명한 시인은 '지봉유설'의 저자로 잘 알려진 이수광이었다.

당시 베트남에는 '풍극관'이라는 시인이 있었다. 그는 사신으로 명나라에 갔을 때 이수광을 만났다고 한다. 풍극관은 세계의 좋은 시들을 모았는 데, 그중에서도 이수광의 시를 최고로 꼽았다고 한다. 그 때문에 풍극관이 엮은 시집 중에 이수광의 시가 맨 첫장에 실려 있었다. 그래서 베트남 사람들도 시(詩)하면 이수광을 떠올릴 정도였다고 한다.

같은 시기 '허난설헌'의 시는 동생 허균에 의해 '난설헌집'으로 묶인 것이 우연한 기회에 명나라 사신에게 건네졌다. 이 시집을 본 명나라 사신이 감동해 중국에서 출간, 허난설헌의 명성이 중국에까지 크게 알려졌다. 또 한참 뒤인 숙종 37년(1711년)에는 일본에서도 간행돼 인기를 얻었다. 명실상부한 국제 시인이 된 셈이다.

조선후기 서얼이었던 이덕무·박제가·유득공은 양반 출신 이서구와 함께 '건연집'이라는 공동 시집을 펴냈다. 이 시집도 청나라에서 간행되면서 북경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고, 시인들의 이름도 덩달아 유명해졌다고 한다.

당시 조선의 해외 교역 무대가 중국과 아시아 지역임을 감안한다면, 그야말로 '글로벌시인'이었고 요즘 말로 한류 시인임에 틀림없다.

한국인 성인 10명 중 3명은 1년에 책을 1권도 읽지 않는다고 한다. 우습게도 10년 전 발간 이후 별 반응 없었던 '채식주의자'가 맨부커상 수상 이후 두 달 째 베스트셀러 정상을 차지하고 있다. 수상작이라도 읽는 것이 그나마 다행이지만 책 읽지 않는 국민이 한류작가를 기대하고, 노벨상을 바라는 것은 지나친 욕심이다.

/채희종 사회2부장 chae@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程厚植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편 집 부 220-0649
정 치 부 220-0632
사 회 부 220-0642
사 회 2부 220-0652
경 제 부 220-0663 〈FAX 222-4938〉
문 화 부 220-0661
문화미디어부 220-0664
체 육 부 220-0697
사 진 부 220-0693
경영지원국 220-0515 〈FAX 222-800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0195〉
기획관리국 227-9600 〈FAX 227-95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FAX 222-0195〉
디 자 인 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